

예술영재의 개인 및 환경적 특성 탐색 : 음악, 미술, 무용영재를 중심으로

이 현 주	이 미 나	이 화 선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예술영역(음악, 미술, 무용)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예술영재들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의 탐색을 위해 59명의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별 특성과 관련해서는 예술영재의 재능 특성과 예술적 재능이 발현되는 과정 및 예술적 성장 요인에 있어서 분야별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예술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있어서는 공교육 차원보다는 사교육차원의 교육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과 무용분야의 교육비용이 미술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술영역에서의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예술영재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차후 우리나라 예술영재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예술영재,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I. 서 론

과거에는 영재에 대하여 지능이 우수한 지적 영재에만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2년 영재교육정책이 시행되면서 영재의 범위가 확대되어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관심의 폭이 증대되었다. 특히 학문교과에 밀려 영재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은 예술영재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학

교신저자: 이미나(littlevil@hanmail.net)

* 본 연구는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2009 한국예술영재교육원생 follow-up 연구: 예술영재성의 발현 배경에 관한 탐색」(이현주, 이미나, 이화선, 2009)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하였음.

문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동안의 영재교육은 학문적 영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영재교육이 제도권내로 통합되면서 영재교육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각 시·도 교육청 단위의 지역공동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예술영재에 대한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여타 다른 학문분야에 비하여 뒤늦게 시작된 예술영재연구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실제적으로 교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 개발에 주력해왔지만 영재성이란 무엇인지, 영재성을 이루는 하위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다양한 재능 영역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영역별 영재아의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영재를 판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윤초희, 강승희, 2005).

영재를 정의하고 판별하여 교육하기 위해서는 영재성에 대한 개념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재란 ‘특정 영역에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이는 일반 지능, 창의적 사고, 특수 학문적 적성,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중 각각에 대하여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에 영재를 정의하는데 중요하게 여겨 왔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경우도 영재의 한 특성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영재성에 대해 정의한 학자들에서도 뒷받침 되어진다. 영재성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Renzulli(1986)는 세고리 영재성 모형에서 평균 이상의 일반 혹은 특수 능력, 높은 과제 집착력, 높은 창의성을 영재성의 구성요소로 상징하였다. 심리사회학적 측면에서 영재성을 정의한 Tannenbaum(2003)은 영재성을 인간의 윤리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심리적 생활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해 내는 능력 또는 잠재력으로 정의하였다. Gardner(1983)는 기존의 논리 및 분석적 사고 중심의 일반지능에서 탈피하여 언어, 수리, 공간, 신체, 음악, 개인 내, 개인 간을 포함하는 다중지능 개념을 강조하였으며, 영재성은 이러한 지능 분야마다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Gagnè(2000)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학자들과는 달리 타고난 영재성과 계발된 특수재능을 구분하면서 영재성은 인간 적성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평균 이상으로 타고난 능력이며 특수재능은 인간 활동의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평균 이상의 성취를 말하는데, 이러한 적성은 동기와 성격이라는 개

인 내적 요인과 가정, 학교, 사회의 환경요인의 영향에 의해 특수재능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박성익 외, 2006). Van Tassel-Baska(2005)는 영역특수적 이론을 제시하면서 특정 영역에서의 뛰어난 능력을 영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이상의 영재성에 대한 정의들은 영재성이 어떤 능력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뛰어난 지적 능력만이 영재를 정의하는 능력이 아니라 특정영역에서의 뛰어난 능력(재능)을 보이는 것도 영재를 정의하는 능력으로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영재성은 영재 개인의 능력 및 특성, 가정 및 학교를 비롯한 환경적 영향을 받아서 발달한다(Gagnè, 2000; Tannenbaum, 2003; Van Tassel-Baska, 1983). 영재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들이 적절하게 작용하여야 하는데 Gagnè(2000)에 의하면, 영재성의 발달에는 우수한 능력과 함께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율적인 학습 태도, 높은 동기(흥미, 집중력, 주도적 태도)가 중요하다. Piirto(1999)는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양성성, 상상력, 통찰력, 개방성, 민감성, 끈기, 융통성, 모험하기, 자기효능감,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의지 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음악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Winner와 Martino(1993)는 음악영재의 특성으로 음악적 재능과 흥미 등을 주요한 특성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영재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김홍원, 윤초희, 윤여홍, 김현철(2003)의 연구는 영재아들이 지적 특성으로 지능, 상위인지, 창의적 특성과 언어, 수리, 공간 창의성이 높았으며, 정의적 특성으로는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윤초희, 강승희(2005)도 일반영재집단의 아동들이 지적 능력과 창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정규, 김현철(2005)은 우수한 지적 능력과 건강한 신체를 개인적 특성으로 보고하였다. 오주일(2004)은 음악 영재성의 구성요소를 음악적 지각력, 음악적 기억력, 음악적 창의성, 음악적 표현력, 개인 내적 요인의 5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으며, 태진미(2006)는 음악 영재성의 구인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 모두 중요한 음악재능특성으로 보고하였다.

영재성 연구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환경적 영향이다. Tannenbaum(2003)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성인으로서 뛰어난 성취를 하는데 필요한 특성은 지능, 특수적성, 비인지적 촉진제와 더불어 환경의 영향과 운”이라고 하였다. 환경적 영향 중에서 가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Damon, 1983;

Maccoby & Martin, 1983; Reiss, 1981). 특히, 예술영역에 있어서 가정환경의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Davidson, Howe, Moore, & Sloboda, 1996; Freeman, 1976). 영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영재교육 대상이 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배경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 등이 높은 것이 국내외 연구의 공통된 지적이다. Bloom (1985)은 특정영역에서 뛰어난 성취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을 회상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의 성취강조가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Chan(2005)은 부모의 기대, 독립성의 강조, 가족 유대 등이 영재들의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Freeman (1976)은 가정환경의 충분한 뒷받침이 한 영역에서의 성취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Davidson 외(1996)는 부모의 관심과 뒷받침의 여부가 자녀가 장차 음악을 계속할 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Chetelat(1982)은 미술영재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영재성의 발현에 있어 부모의 강력한 지원과 격려가 중요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Clark과 Zimmerman(2004)도 미술영재들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미술영재들이 그들의 분야에서 지속적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가정에서 많은 격려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외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학력, 경제수준, 직업, 대학전공 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환경뿐 아니라 가족 간의 지지와 조력제공, 학습 자극,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등이 영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박춘성, 이정규, 2009; 이정규, 김현철, 2005; 조석희, 안도희, 한석실, 2003).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영재성에 대한 접근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동안의 영재연구는 수·과학 중심의 지적 영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술영재들이 보이는 특성에 대한 연구는 영재교육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재연구의 다양화와 함께 심도 깊은 연구의 토대를 갖추 수 있는 전환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학문교과에 밀려 소외되었던 예술영역의 영재성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술영재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영재성에 대한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은 예술영역의 분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분야들마다 특성이 상이한 예술에 있어서 분야 간 영재성에 대한 개인 및 특성 요인을 비교해 보는 것은 분야에 따른 예술영재성을 이해하고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분야별 예술영재를 판별하고

선발하는 일, 그리고 영재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및 평가하는 일 등의 효율적인 예술영재교육 운영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영재성의 발현과 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예술분야를 음악, 미술, 무용으로 나누고 각 예술분야에서 영재로 선발된 국립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무용분야 예술영재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야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가 지원의 예술영재교육 시행에 따라 선발된 음악, 미술, 무용) 분야의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학생(이후 예술영재) 총 59명(각 16명, 24명, 19명) 과 그들의 부모 5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술영재들의 전공분야별 인적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예술영재의 인적 특성

전공 분야	성별	학년							전체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음악	남자			-	2	1	2	2	7
	여자			1	1	-	6	1	9
	전체			1	3	1	8	3	16
미술	남자		-	3	2	4	1		10
	여자		1	3	3	1	6		14
	전체		1	6	5	5	7		24
무용	남자	-	1	-	2	-	-	1	4
	여자	1	1	2	1	3	3	4	15
	전체	1	2	2	3	3	3	5	19
전체		1	3	9	11	9	18	8	59

1) 무용영재는 발레전공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학생용과 부모용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전문 연구진에 의해 제작되었다. 본 설문지는 여러 가지 문헌연구를 토대로 설문지 초안이 제작되었고, 문항내용의 적절성을 고려하고 현장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2, 3차의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가 완성되었다. 최종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에 제시된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내용

종 류	내 용
학생용	전공을 시작하도록 이끈 대상, 전공분야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 전공 관련 성향, 예술적 성장에 기여한 요소, 선호하는 교수유형, 재능에 대한 자기인식, 장래희망직업, 인생의 좌우명, 존경하는 인물과 이유
부모용	재능발견시기, 전공시작시기, 자녀의 재능특성, 가정의 예술적 환경, 전공교육비용, 전공교육종류와 기간, 부모의 후원

3. 연구절차와 자료분석

문헌연구를 통해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여,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학생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수거하였다. 개방형 자료를 유목화하고 분류하는 과정에는 영재교육 박사 3인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예술영재들이 가진 인식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분야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수 응답을 한 경우에는 다중응답분석법을 사용하여 케이스 백분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5.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예술영재의 개인적 특성

가. 전공 관련 특성

1) 분야별 전공 관련 성향

전공 관련 성향(노력, 팀작업에 대한 선호, 비선호과제에 대한 참을성, 주관성

/고집)이 분야별로 차이가 어떠한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네 가지 성향 모두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노력’의 경우 무용분야($M=4.74$)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미술분야($M=4.00$)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팀작업에 대한 선호’ 성향의 경우는 미술분야($M=2.83$)가 음악($M=4.63$)과 무용분야($M=4.16$)에 비해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p<.001$). 즉 미술분야의 경우 다른 전공과 달리 팀으로 함께 작업하는 것에 대해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선호과제에 대한 참을성의 경우, 무용분야($M=2.68$)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p<.05$), 주관성/고집의 경우, 무용($M=2.47$)과 음악분야($M=2.38$)에 비해 미술분야($M=1.76$)가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p<.01$).

<표 3> 분야별 전공 관련 성향

성향적 특성 (척도)	분야(N)	M	SD	F	Scheffé
노력 (5점) (문항: 나는 ○○ ⁺ 을 열심히 잘 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나는 스스로 연습하고 ○○적 재능을 연마한다)	음악(16)	4.38	.62	4.85**	ab
	미술(24)	4.00	1.02		b
	무용(19)	4.74	.45		a
	전체(59)	4.34	.82		
팀작업에 대한 선호 (5점) (문항: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을 하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작품을 하고 싶다)	음악(16)	4.63	.62	15.66***	a
	미술(24)	2.83	1.37		b
	무용(19)	4.16	.90		a
	전체(59)	3.75	1.31		
비선호과제에 대한 참을성 (3점) (문항: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연습해야 할 때 화가 나서 잘하지 않는 편이다(R))	음악(16)	2.19	.83	4.09*	b
	미술(24)	2.04	.81		b
	무용(19)	2.68	.58		a
	전체(59)	2.29	.79		
주관성/고집 (3점) (문항: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을 하고 싶어서 레슨 선생님과 부딪힌 적이 자주 있다(R))	음악(16)	2.38	.62	5.18**	a
	미술(24)	1.76	.77		b
	무용(19)	2.47	.84		a
	전체(59)	2.18	.81		

* $p<.05$, ** $p<.01$, *** $p<.001$, ○○⁺ 전공분야

ab: 서로 다른 영문자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2) 재능 특성

부모들이 자녀의 재능 특성을 묻는 질문(“현재 자녀에게 전공에 대한 영재성

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에서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에 응답한 결과를 <표 4>와 같이 크게 감각, 인지, 동기적 특성들로 유목화하여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특성에서는 ‘표현력/재현력’(16.9%), ‘상상력/창의성’(14.7%), ‘습득력’(10.3%)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동기적 특성에서는 ‘열정/즐거움’(16.2%)이 두드러지게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분야에서 언급된 감각적 특성은 ‘절대음감’(8.1%)과 ‘청음’(13.5%)이며, 인지적 특성에서는 ‘습득력’(24.4%), ‘초견’(10.8%)이, 동기적 특성에서는 ‘열정/즐거움’(18.9%)이 많이 언급되었다. 미술분야의 경우, ‘상상력/창의성’(23.3%), ‘표현력/재현력’(15.0%), ‘관찰력’(10.0%)과 같은 인지적 특성이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다. 특히 ‘상상력/창의성’은 미술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언급된 특성이었다. 또한 ‘열정/즐거움’(18.3%)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기타로 분류된 ‘주관성’(10.0%)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무용분야의 경우, ‘표현력/재현력’(28.2%), ‘습득력’(12.8%)이 가장 많이 언급된 인지적 특성이었으며, 동기적

<표 4> 자녀의 재능 특성 빈도(%)

재능 특성	음악	미술	무용	전체		
감각	리듬감	-	-	1(2.6)	1(.7)	11 (8.1)
	색채감각	-	1(1.7)	-	1(.7)	
	순발력	-	-	1(2.6)	1(.7)	
	절대음감	3(8.1)	-	-	3(2.2)	
	청음	5(13.5)	-	-	5(3.7)	
인지	관찰력	-	6(10.0)	-	6(4.4)	73 (53.7)
	습득력(기억력·이해력)	9(24.4)	-	5(12.8)	14(10.3)	
	표현력/재현력	3(8.1)	9(15.0)	11(28.2)	23(16.9)	
	시지각력/공간지각력	-	4(6.7)	-	4(2.9)	
	즉흥성	1(2.7)	-	-	1(.7)	
	초견	4(10.8)	-	-	4(2.9)	
	상상력/창의성	2(5.4)	14(23.3)	4(10.3)	20(14.7)	
	감수성	-	1(1.7)	-	1(.7)	
동기	끈기/성실	-	-	6(15.4)	6(4.4)	41 (30.1)
	열정/즐거움	7(18.9)	11(18.3)	4(10.3)	22(16.2)	
	몰입/집중력	1(2.7)	3(5.0)	1(2.6)	5(3.6)	
	호기심/다양한 관심	1(2.7)	5(8.3)	1(2.6)	7(5.1)	
	목표의식	1(2.7)	-	-	1(.7)	
기타	신체관리	-	-	1(2.6)	1(.7)	11 (8.1)
	타고난 신체조건	-	-	4(10.3)	4(2.9)	
	주관성	-	6(10.0)	-	6(4.4)	
전체	37(20.1)	60(32.6)	39(21.2)	13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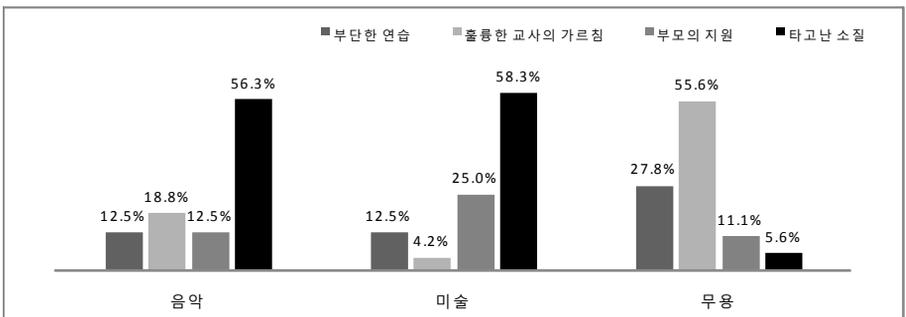
특성인 ‘끈기/성실’(15.4%)이 높게 나타났다. ‘끈기/성실’은 무용분야에서만 언급된 동기적 특성이었다.

나. 예술적 성장에 기여한 요소

<표 5>는 예술영재들이 자신의 예술적 성장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네 가지의 요인(부단한 연습,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 부모의 지원, 타고난 소질)을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이다. 음악분야의 경우, 자신의 타고난 소질을 1순위(9명, 56.3%)로,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을 2순위(8명, 50.0%)로 꼽았다. 미술분야의 경우 역시 자신의 타고난 소질을 1순위(14명, 58.3%)와 2순위(8명, 33.3%)로 선택하였다. 무용분야의 경우,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을 1순위(10명, 55.5%)와 2순위(6명, 33.3%)로, 부단한 연습 역시 2순위(6명, 33.3%)로 선택하였다. 전공분야 간 차이를 정리하자면, 음악과 미술영재들의 경우는 타고난 소질을 자신의

<표 5> 예술적 성장에 기여한 요소 빈도(%)

요소	음악(N=16)				미술(N=24)				무용(N=18)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부단한 연습	2 (12.5)	3 (18.8)	3 (18.8)	8 (50.0)	3 (12.5)	7 (29.2)	7 (29.2)	7 (30.4)	5 (27.8)	6 (33.3)	5 (27.8)	2 (11.1)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	3 (18.8)	8 (50.0)	4 (25.0)	1 (6.3)	1 (4.2)	2 (8.3)	10 (41.7)	10 (43.5)	10 (55.6)	6 (33.3)	1 (5.6)	1 (5.6)
가정환경 (부모의 지원)	2 (12.5)	3 (18.8)	7 (43.8)	4 (25.0)	6 (25.0)	7 (29.2)	6 (25.0)	5 (21.7)	2 (11.1)	1 (5.6)	7 (38.9)	8 (44.4)
재능 (타고난 소질)	9 (56.3)	2 (12.5)	2 (12.5)	3 (18.8)	14 (58.3)	8 (33.3)	1 (4.2)	1 (4.3)	1 (5.6)	5 (27.8)	5 (27.8)	7 (38.9)



[그림 1] 예술적 성장에 기여한 요소 「1순위」 : 전공별 비교

예술적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으로 꼽은 반면, 무용은 타고난 소질보다는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과 부단한 노력을 꼽았다([그림 1] 참조).

이처럼 무용영재들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타고난 소질’을 자신의 예술적 성장에 가장 낮게 기여했다고 생각하였으며,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을 가장 높게 기여한 요소로 여겼다. 본 결과와 관련하여 예술영재들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내용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예술영재들의 자기 재능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자신은 타고난 예술적(전공) 소질 또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표 6> 참조), 전공에 따라 재능 인식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58)=4.45, p<.05$). 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용영재들($M=3.68$)은 음악($M=4.50$)과 미술영재($M=4.42$)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재능에 대한 자기 인식의 분야별 차이검증

전공분야	N	M	SD	F	Scheffé
음악	16	4.50	.82	4.45*	a
미술	24	4.42	.93		a
무용	19	3.68	1.00		b
전체	59	4.20	.98		

* $p<.05$

ab: 서로 다른 영문자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또한 예술영재들이 선호하는 교수유형을 알아본 결과(<표 7> 참조), 전체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교사’(37.3%, 22명)보다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교사’(62.7%, 37명)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용영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교사’에 대한 선호도(57.9%, 11명)가 자율적인 교사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무용분야, 특히 동작 하나하나의 정확한 습득과 재현이 매우 중요한 발레영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7> 분야별 선호하는 교수유형 빈도(%)

교수유형	음악	미술	무용	전체
무엇을 해야할 지 가르쳐주는 교사	6(37.5)	5(20.8)	11(57.9)	22(37.3)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교사	10(62.5)	19(79.2)	8(42.1)	37(62.7)
전체	16(100)	24(100)	19(100)	59(100)

다. 삶의 지표 및 목표

1) 장래희망직업

예술영재들의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술영재들의 개방형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공 관련 직업군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공 관련 직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전문예술인과 예술교육자로 양분된 응답들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영재들의 장래 희망직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8> 참조), 대부분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2명, 89.7%). 전공별 차이를 살펴보면, 음악과 무용영재들은 모두 전공 관련 직업을 희망한 반면(각각 100%), 미술영재들의 경우 비전공관련 직업(스포츠마케터, 농부, 수의사, 프로듀서, 의사 등)을 희망하는 빈도가 다른 전공과 달리 높게 나타났다(6명, 26.1%).

<표 8> 장래희망직업 빈도(%)

분류	음악	미술	무용	전체	
전공관련 직업	전문예술인	15(93.8)	17(73.9)	17(89.5)	49(84.5)
	예술교육자	1(6.3)	-	2(10.5)	3(5.2)
	전체	16(100)	17(73.9)	19(100)	52(89.7)
비전공관련 직업	-	6(26.1)	-	6(10.3)	
전체	16(100)	23(100)	19(100)	58(100)	

2) 인생좌우명

예술영재들이 지닌 인생좌우명은 <표 9>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최선을 다하자’는 모두 29명(50.9%) 영재들의 좌우명이었으며, 이와 유사한 내용인 ‘성취하자’ 역시 두 번째로 많은 영재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다(13명, 22.8%). 전공별로 살펴보면, 무용분야의 경우 ‘최선을 다하자’(68.4%), ‘성취하자’(26.3%)가 다른 전공학생들보다 높은 반면, ‘즐거자’를 좌우명으로 보고한 경우는 없었다.

<표 9> 인생좌우명 및 목표

분류	빈도(%)			
	음악	미술	무용	전체
1. 최선을 다하자/할 수 있다	7(46.7)	9(39.1)	13(68.4)	29(50.9)
2. 즐기자	4(26.7)	5(21.7)	-	9(15.8)
3. 성취하자	2(13.3)	6(26.1)	5(26.3)	13(22.8)
4. 사명감을 갖자	2(13.3)	1(4.3)	1(5.3)	4(7.0)
5. 기타	-	2(8.7)	-	2(3.5)
전체	15(100)	23(100)	19(100)	57(100)

3) 존경하는 인물

“자신이 가장 닮고 싶거나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예술영재들이 응답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존경하는 인물과 존경하는 이유

분류	빈도(%)				
	음악	미술	무용	전체	
전공 관련	10(66.7) (예) 베토벤, 카잘스, 윤디 리	11(52.4) (예) 고희, 피카소, 김홍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12(63.2) (예) 강수진, 마리아 칼라스, 자하로바	33(56.9)	
	주변인물 (예) 지도 선생님, 전공동료	4(26.7) 2(9.5)	7(33.3)	3(15.8)	
전공 비관련	-	7(33.3)	2(10.5)	9(16.4)	
	유명인물 (예) 하이디, 베르나르베르베르, 오바마, 헬렌켈러, 플레밍, 김연아, 강수진	1(6.7)	1(4.8)	2(10.5)	
주변인물 (예) 부모님	15(100)	21(100)	19(100)	55(100)	
존경 하는 이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8(53.3)	4(19.0)	11(57.9)	23(41.8)
	뛰어난 예술성	5(33.3)	8(38.1)	5(26.3)	18(32.7)
	훌륭한 성품	-	3(14.3)	1(5.3)	4(7.3)
	동일 취향	2(13.3)	4(19.0)	-	6(10.9)
	기타	-	2(9.5)	2(10.5)	4(7.3)
	전체	15(100)	21(100)	19(100)	55(100)

대부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유명인물들을 꼽았다(음악 66.7%, 미술 52.4%, 무용 63.2%). 예를 들면, 음악영재는 베토벤, 파블로 카잘스, 윤디 리 등을, 미술영재는 고희, 피카소, 김홍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무용영재는 강수진, 마리아 칼라스, 스베틀라나 자하로바 등을 꼽았다. 미술분야의 경우, 전공과 관

련되지 않은 유명인물을 가장 존경한다고 답한 비중(33.3%, 7명)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음악 0.0%, 무용 10.5%). 자신들이 꼽은 인물들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41.8%, 23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뛰어난 예술성(32.7%, 18명), 자신과 유사한 취향(10.9%, 6명), 훌륭한 성품(7.3%, 4명) 순으로 보고하였다.

2. 예술영재의 환경적 특성

가. 전공분야의 선택과정

본 절에서는 예술영재들이 전공분야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또 분야별로 이러한 전공 선택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자녀의 재능을 발견한 시기, 전공을 시작한 시기에 대해 부모들이 응답한 자료와 전공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준 대상, 전공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예술영재들이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재능발견 시기와 전공시작 시기

예술영재의 부모들이 보고한 자녀의 재능발견 시기는 <표 11>과 같다. 미술분야의 경우, 3세 이하에 자녀의 재능을 발견한 경우가 7명(30.4%)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음악분야의 경우, 7세 이하에 재능을 발견한 사례가 총 13명(80.4%)으로 대부분 어린 연령에 재능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분야는 4세 이하에 자녀의 재능을 발견한 사례가 없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9-10세에 재능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경우(9명, 47.4%)가 많았다. 이를 통해 자녀의 재능발견 시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분야는 미술분야이고, 가장 늦는 분야는 무용분야임을 알 수 있다.

예술영재들이 자신의 전공을 시작한 시기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음악분야의 경우, 5세 이하(3명, 18.8%), 6-7세(각각 4명, 25.0%)에 시작한 경우가 많았으며, 무용분야 역시 이와 유사하게 5세 이하(4명, 21.1%), 6세(5명, 26.3%)에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미술분야의 경우, 5세 이하에 시작한 학생들의 빈도(6명, 26.1%)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동시에 11세 이후에 전공을 시작하는 학생의 비율 역시 34.8%(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1세 이후에 전공을 시작한 미술영재들을 제외하고는, 예술영재들의 전공시작 시기가 부모들이 자녀의 재능을 발견한 시기와 유사했다.

<표 11> 재능발견 시기와 전공시작 시기 빈도(%)

시기	음악		미술		무용		전체	
	재능 발견	전공 시작	재능 발견	전공 시작	재능 발견	전공 시작	재능 발견	전공 시작
3세(이하)	1(6.3)		7(30.4)		-		8(13.8)	
4세	2(12.5)		3(13.0)		-		5(8.6)	
5세(이하)	4(25.0)	3(18.8)	5(21.7)	6(26.1)	2(10.5)	4(21.1)	11(19.0)	13(22.4)
6세	3(18.8)	4(25.0)	3(13.0)	1(4.3)	3(15.8)	5(26.3)	9(15.5)	10(17.2)
7세	3(18.8)	4(25.0)	-	2(8.7)	2(10.5)	2(10.5)	5(8.6)	8(13.8)
8세	-	2(12.5)	1(4.3)	5(21.7)	1(5.3)	3(15.8)	2(3.4)	10(17.2)
9세	2(12.5)	2(12.5)	1(4.3)	-	5(26.3)	1(5.3)	8(13.8)	3(5.2)
10세	-	-	-	1(4.3)	4(21.1)	2(10.5)	4(6.9)	3(5.2)
11세(이상)	1(6.3)	1(6.3)	3(13.0)	8(34.8)	2(10.5)	2(10.5)	6(10.3)	11(19.0)
평균연령	6.2세	7.0세	5.5세	8.2세	8.3세	7.3세	6.6세	7.6세
전체	16(100)		23(100)		19(100)		58(100)	

예술영재들의 재능이 부모에게 발견된 시기와 그들이 실제로 전공에 집중하기 시작한 시기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재능을 처음 발견한 시기(6.6세)로부터 1년 안에 전공교육을 시작하는 것(7.6세)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의 경우, 전체 경향과 유사하게 재능을 발견한 후 1년 안에 전공을 시작하였지만, 미술의 경우는 세 분야 중 가장 먼저 재능을 발견하지만(5.5세) 본격적으로 전공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8.2세)는 가장 늦는 경향을 보였다. 무용의 경우는 재능발견 시기보다 전공시작 시기가 더 빨랐으며, 이는 전공을 시작한 이후에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전공을 시작하도록 이끈 대상

예술영재들에게 자신의 전공분야를 시작하도록 이끈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미술과 무용분야의 영재들은 ‘나 스스로’ 전공분야를 선택하고 시작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각각 17명(70.8%), 11명(61.1%)). 반면, 음악영재들의 경우 전공을 시작하도록 이끈 대상으로 ‘어머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8명, 53.0%), 또한 다른 전공과 달리 ‘아버지’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2명, 13.3%).

전공시작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11세 이상’인 영재들의 경우만을 살펴본 결과(<표 12> 참조), 대부분의 경우 전공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특히 미술의 경우, 11세 이후에 미술을 시작한 8명의 학생들 중 본인 스스로 전공을 선택

<표 12> 전공을 시작하도록 이끈 대상

빈도(%)

대상	음악		미술		무용		전체	
	모든 영재	11세 이후 전공시작 영재	모든 영재	11세 이후 전공시작 영재	모든 영재	11세 이후 전공시작 영재	모든 영재	11세 이후 전공시작 영재
나 스스로	5(33.3)	1	17(70.8)	6	11(61.1)	1	33(56.9)	8
어머니	8(53.3)	0	6(25.0)	2	7(38.9)	1	22(37.9)	3
아버지	2(13.3)	-	-	-	-	-	2(3.5)	-
기타	-	-	1(4.2)	-	-	-	1(1.7)	-
전체	15(100)	1	24(100)	8	18(100)	2	58(100)	11

한 학생들이 6명(75.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다른 전공에 비해 재능발견 시기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전공시작 시기가 늦었던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미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초등 고학년 시기에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지각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3) 전공분야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

예술영재들이 개방형으로 응답한 전공분야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를 <표 13>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분야에 흥미를 갖게 된 가장 많은 이유는 ‘순수한 동기 및 애정’(34명, 57.6%)이며, 두 번째는 ‘직접적인 전공경험과 교육 및 취미활동에서 실력향상에 의한 흥미유발’(12명, 20.3%)이었다. 무용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의 영재들과 비교해볼 때

<표 13> 전공분야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

빈도(%)

분류	음악	미술	무용	전체
1. 순수한 동기 및 애정	10(62.5)	18(75.0)	6(31.6)	34(57.6)
2. 간접적인 전공경험(예: 공연관람)	1(6.3)	-	4(21.1)	5(8.5)
3. 부모 및 주변사람들의 권유 및 영향	1(6.3)	1(4.2)	2(10.5)	4(6.8)
4. 직접적인 전공경험과 교육 및 취미활동에서 실력향상에 의한 흥미유발	4(25.0)	2(8.3)	6(31.6)	12(20.3)
5. 외적 동기(예: 사회적 인정·과시·성공을 위해)	-	2(8.3)	1(5.3)	3(5.1)
6. 기타(기억안남)	-	1(4.2)	-	1(1.7)
전체	16(100)	24(100)	19(100)	59(100)

‘직접적인 전공경험과 교육 및 취미활동에서 실력향상에 의한 흥미유발’의 비율이 높았으며(6명, 31.6%), ‘간접적인 전공경험’에 의한 비율도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4명, 21.1%).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악과 미술분야의 경우 전공분야에 대한 ‘순수한 동기 및 애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무용분야의 경우 ‘순수한 동기 및 애정’과 함께 ‘직접적인 전공경험과 교육 및 취미활동에서 실력향상에 의한 흥미유발’을 1순위로 보고하였다. 즉, 무용분야의 경우 전공분야에 대해 흥미를 갖는데, 내재적 동기와 함께 교육적 경험에 의한 피드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 가정의 지원

본 절은 예술영재들의 예술적 성장에 바탕이 되는 환경적 측면, 특히 가정 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정의 예술적 환경(전공영역에 대한 관심 및 관여도), 전공교육을 위한 교육비용과 후원 정도, 교육종류와 기간에 대해 부모들이 응답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의 예술적 환경

가정의 예술적 환경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표 14>와 같이 네 가지 질문의 응답빈도를 분석하였다.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분은 자녀의 전공에 관심이 많다”에 응답한 비율이 음악, 미술, 무용 각각 60.9%(14명), 46.8%(22명), 55.2%(16명)로 나타났으며, “부모님과 조부모 중 적어도 한 분은 해당전공과 관련된 직업에 종

<표 14> 가정의 예술적 환경 빈도(%)

질문 내용*	음악	미술	무용	전체
1.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분은 OO**에 관심이 많다.	14(60.9)	22(46.8)	16(55.2)	52(52.5)
2. 부모님과 조부모 중 적어도 한 분은 OO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5(21.7)	10(21.3)	5(17.2)	20(20.2)
3. 부모님 중 한 분은 학창시절 OO전공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	3(13.0)	12(25.5)	5(17.2)	20(20.2)
4. 그다지 OO에 관심이 없다.	1(4.4)	3(6.4)	3(10.3)	7(7.1)
전체	23(100)	47(100)	29(100)	99(100)

* 복수응답 가능, OO** 전공분야

사하고 있다”와 “부모님 중 한 분은 학창시절 해당전공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의 질문에 응답한 비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공을 불문하고 자녀의 전공영역에 대한 부모의 관여 및 관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 전공 교육비용

월평균 지출하는 자녀의 전공교육비용은 <표 15>와 같다. 미술분야의 경우, 다른 전공과 달리 10만원 이하의 교육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6%(10명)이었고, 61만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단지 5.3%(1명)에 불과하였다. 음악과 무용분야에서는 10만원 이하라는 응답은 없으며, 61만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각 60.0%(12명), 66.7%(12명)라는 점과 비교하였을 때, 미술분야의 경우 가계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월평균 101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빈도는 무용분야에서 38.9%(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음악 6.7%(4명), 미술 0.0%(0명)).

<표 15> 전공 교육비용

교육비용	빈도(%)			
	음악	미술	무용	전체
10만원 이하	-	10(52.6)	-	10(19.2)
11만원~20만원	-	3(15.8)	-	3(5.8)
21만원~40만원	1(6.7)	3(15.8)	2(11.1)	6(11.5)
41만원~60만원	2(13.3)	2(10.5)	4(22.2)	8(15.4)
61만원~100만원	8(53.3)	1(5.3)	5(27.8)	14(26.9)
101만원 이상	4(6.7)	-	7(38.9)	11(21.2)
전체	15(100)	19(100)	18(100)	52(100)

3) 전공교육 종류와 기간

예술영재들이 전공 관련 교육을 받은 종류(기관)와 기간을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설학원(64.1%), 개인레슨(45.3%), 교육청 산하 영재프로그램(23.9%), 공공기관 프로그램(27.2%),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7.0%)을 통해 전공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음악영재들의 경우, 개인레슨(62.5%)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전공에 비해 개인레슨을 받은 기간(평균 76개월)도 가장 길었다. 무용분야의 경우, 사설학원(89.5%)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프로그램

(52.6%) 및 개인레슨(47.4%)의 비중이 높았다. 미술영재들의 경우, 사설학원(65.2%)을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전공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개인레슨(26.1%)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전공교육 종류와 기간

교육종류	음악				미술				무용				전체			
	N	%	기간 (개월)	SD												
1. 사설학원	6	37.5	37	29.4	15	65.2	28	25.8	17	89.5	53	24.5	38	64.1	39	27.2
2. 개인레슨	10	62.5	76	43.2	6	26.1	18	15.0	9	47.4	15	14.2	25	45.3	37	24.3
3. 교육청 산하 영재프로그램	2	12.5	46	62.2	4	17.4	9	3.5	6	31.6	36	29.1	12	23.9	30	32.4
4. 공공기관 프로그램	8	50.0	71	36.2	5	21.7	21	16.7	10	52.6	26	21.4	23	27.2	39	33.4
5.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	-	-	-	-	-	-	-	4	21.1	33	14.0	4	7.0	11	5.1
기타	-	-	-	-	-	-	-	-	3	15.8	36	12.0	3	5.3	12	4.0

4) 부모의 후원

예술영재들의 부모의 후원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들에게 자녀의 예술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무용분야가 가장 높은 값($M=5.00$)을, 미술분야가 가장 낮은 값($M=4.29$)을 나타냈다. 특히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무용분야의 경우 부모 19명 모두가 가장 높은 값인 5점에 응답했다($SD=0$). 전공분야에 따라 자녀에 대한 후원 정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표 17> 자녀에 대한 후원 분야별 차이검증

전공분야	N	M	SD	F	Scheffé
음악	16	4.63	.72	5.20**	ab
미술	24	4.29	.96		b
무용	19	5.00	.00		a
전체	59	4.61	.77		

** $p < .01$

ab: 서로 다른 영문자는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있었다($F(2, 58)=5.20, p<.01$). 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용분야가 미술분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후원 정도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술영재성의 발현과 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예술영재로 선발되어 국립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음악, 미술, 무용분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영재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예술영재의 재능으로 가장 많이 인식된 것은 인지적 특성이었으며, 각 특성의 하위내용들은 음악, 미술, 무용의 세부분야 간에 공통적인 것과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나 상상력, 창의성 등은 세 분야 모두에서 나타난 공통적 요인들이었다. 하지만 음악분야의 초견(初見)연주능력이나 미술분야의 시지각력 등은 각각의 하위분야에서만 나타나는 요인들이었다. 인지적 특성 다음으로 예술영재의 재능으로서 많이 인식되는 것은 동기적 특성이었다. 동기적 특성의 대부분은 세 분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이는 과학이나 수학분야의 영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일반영재나 예술영재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오주일, 2004; 이용애, 2001; 태진미, 2006; Gardner, 1993; Gordon, 1988; Tannenbaum, 1983; Winner & Martino, 1993)을 지지하는 결과로, 예술영재의 판별과 교육평가과정에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교육 적용을 위해서는 예술의 세부분야별로 차이를 보이는 특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실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술영재들이 자신의 예술적 성장에 기여한 요소를 보고한 결과를 살펴보면, 분야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음악과 미술영재들은 타고난 소질, 즉 자신의 재능으로 인해 현재의 예술적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무용영재들은 자신의 예술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사의 영향을 꼽았다. 이는 무용영재들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에 대해

다른 분야의 영재들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고, 자율성보다는 명확한 지시를 해 주는 교사를 더 선호하는 결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해진 동작을 아름답고 정확하고 표현해야 하는 무용분야 특히 발레의 영역적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예술영재의 환경적 특성에 대해서 우선 분야별로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분야의 경우, 대부분 재능이 발견된 후 1년 안에 전공교육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미술분야의 경우, 부모에 의해 비교적 어린 연령에서 그들의 재능이 발견되지만 본격적인 전공교육이 시작되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들(전공을 시작하도록 이끈 대상, 전공분야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미술영재와의 면접을 통한 기존의 연구결과(Clark & Zimmerman, 2004)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미술영재들의 경우 어린 연령부터 그들의 재능이 외부적으로 표출되지만 미술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자기 재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전공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무용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부모에 의해 전공을 시작한 후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무용영재들이 다른 분야의 예술영재들보다 전공분야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흥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렇듯 예술영재의 재능이 외적으로 발현되어 본격적인 전공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세 분야 간에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예술영재들은 공교육 차원의 영재교육보다는 사교육을 통한 교육경험을 갖는 경우가 많았지만, 세부분야별로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음악분야의 경우 개인레슨을 통한 사사(師事)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미술과 무용분야에서는 사설학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공교육을 위한 교육비용은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다른 분야에 비해 개인레슨 비중이 낮은 미술분야의 교육비용이 제일 적게 나타났다. 이는 공교육 차원에서 예술영재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결과로, 예술영재교육을 과학이나 수학영재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존의 예술교육에서 전통적으로 내려 온 독특한 교육방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공교육 차원에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술영재들이 지닌 개인적·환경적 특성을 통해 예술영재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예술영재와 비교될 수 있는 일반학생 즉, 예술을 전공하고 있지만 영재로 분류되지 않는 집단과의 차이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예술영재와 일반학생 간의 비교를 통해 예술분야에서 영재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 미술, 무용분야 간의 비교를 통해 예술영재성의 세부분야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술분야 안에서도 세부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다른 분야와는 다른 예술만의 특성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에 앞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 가능한 수학이나 과학분야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분야별 예술영재들이 보이는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 사례수의 제약으로 인해 발달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결과에 예술분야와 연령의 혼합효과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발달적 차이가 존재하는 아동기, 청소년기의 예술영재들을 비교함에 있어 연령별 차이를 통제하거나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홍원, 윤초희, 윤여홍, 김현철 (2003). **초등 영재학생의 지적·정의적 행동특성 및 지도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2003-25.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연, 한기순 (2006).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박춘성, 이정규 (2009). 영재학생의 가정환경 영향력 분석: 초등영재학급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8(1), 131-142.
- 오주일 (2004). **음악영재 교육 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통한 음악영재성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윤초희, 강승희 (2005). 인지적 특성에 의한 영재 유형간 판별분석: 초등 언어영재와 수학 영재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3), 63-80.
- 이용애 (2001).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 방법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 11(3), 203-220.

- 이정규, 김현철 (2005). 우리나라의 영재의 개인 및 가정 환경적 배경 변인 연구. **교육방법연구**, 17(2), 247-267.
- 이현주, 이미나, 이화선 (2009). **2009 한국예술영재교육원생 follow-up 연구: 예술영재성의 발현 배경에 관한 탐색**.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조석희, 안도희, 한석실 (2003). **영재성의 발굴 및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수탁연구 CR2003-28. 한국교육개발원.
- 태진미 (2006). **음악영재교육**. 인천: 도서출판 예종.
- Bloom, B. S.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entine Books.
- Chetelat, F. J. (1982).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the life situations and environment which nurture the artistically gifted and talented child.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3(10), 3190 A. (University Microfilms No. DA8305624).
- Clark, G., & Zimmerman, E. (2004). Views of self, family background, and school: Interviews with artistically talented students. In E. Zimmerman (Ed.), *Artistically and musically talented students* (pp. 103-117).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Chan, D. W. (2005). Family environment and talent development of Chinese gifted students in Hong Kong. *Gifted Child Quarterly*, 49(3), 211-221.
- Damon, W. (1983).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Norton.
- Davidson, J. W., Howe, M. J. A., Moore, D. G., & Sloboda, J. A. (1996).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in the development of musical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 399-412
- Freeman, J. (1976). Developmental influences on children's perception. *Educational Research*, 19, 69-75.
- Gagnè, F. (2000). Understanding the complex choreography of talent development through DMGT-based analysis. In K. A. Heller, F. J. Mönks, R. J. Sternberg & R. F. Subotni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 (pp. 67-78). New York: Pergamon.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An anatomy of creativity as seen through the lives of Freud, Einstein, Picasso, Stravinsky, Eliot, Graham, and Gandhi*. New York: Basic Books.
- Gordon, E. (1988). *The musical aptitude profile*. Chicago, IL: The Riverside Publishing Co.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 - 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1-101). New York: Wiley.

- Piirto, J. (1999). *Talented children and adults: Their development and education* (2nd ed.). New York: Macmillan.
- Reiss, D. (1981). *The family's construction of re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enzulli, J. S. (1986). The three-ring conception of giftedness: A developmental model for creative productivity.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pp. 246-279).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nenbaum, A. J. (1983).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Macmillan.
- Tannenbaum, A. J. (2003). Nature and nurture of giftedness.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3rd ed.). (pp. 45-59). Boston, MA: Allyn & Bacon.
- Van Tassel-Baska, J. (1983). Profiles in precocity: The 1982 midwest talent search finalists. *Gifted Child Quarterly*, 27(3), 139-144.
- Van Tassel-Baska, J. (2005). Domain-specific giftedness. In R. J. Sternberg & J.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pp. 358-39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ner, E., & Martino, G. (1993). Giftedness in the visual arts and music. In K. A. Heller, F. J. Mönks & A.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253-281). New York: Pergamon Press.

= Abstract =

A Study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Background of Gifted Students in Arts

Hyun-joo Lee

SungKyunKwan University

Mi-na Lee

SungKyunKwan University

Hwa-s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personal and environmental background variables that influence to the gifted students in arts. 59 gifted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is study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 of gifted students,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alent, and contributing factors to the growth of arts. Personal characteristics of gifted students in art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 in three fields of arts. As the environmental background, parents of gifted have offered them the extensive support financially and emotionally and also had high interest in Arts. The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versus public education in arts was high. Expecially, gifted students of music and dancing fields was relying more on private education than artistically gifted students. This study was examined for the empirical study of the gifted in art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 for further study for the gifted were discussed.

Key Words: The gifted in arts, Personal background, Environmental background

1차 원고접수: 2010년 7월 5일

수정원고접수: 2010년 8월 9일

최종게재결정: 2010년 8월 19일